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이 보 략¹⁾ 박 혜 준²⁾ 김 수 정³⁾ 김 부 열⁴⁾ 김 태 종⁵⁾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주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발달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석한 후에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과 주양육자 113쌍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적용하여 발달 유형을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수준은 전반적으로 정상분포에 속하나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내 발달 유형은 인지, 언어발달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정서 발달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은 '사회정서발달 부진'(43.6%)과 '사회정서발달 정상'(56.4%)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발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이 낮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주당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동의 발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정서발달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 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지역아동센터, 학령초기아동, 발달유형, 발달환경, 잠재프로파일분석

* 이 논문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발달 영향평가 기초연구).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BK21플러스 신진연구인력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hyejun@snu.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통합과정

4)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5)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I. 서 론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수행해오던 돌봄의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에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이 확충되면서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위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은 초등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주관 부처가 달라서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이보람, 김현정, 김태중, 김부열, 박혜준, 2018).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도 일과시간이 일찍 끝나는 저학년의 경우에 약 30.9%의 아동이 방과 후에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혼자 지내며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통계청, 2017).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령초기 아동의 경우 발달 특성상 여전히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그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조영희, 송혜림, 2009). 그래서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방과 후에 사설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의 낮은 접근성, 부족한 운영시간, 운영 프로그램의 낮은 질 등으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이 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최효진, 2016). 송혜림, 조영희, 정영금, 고선강과 김유경(2010)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은 맞벌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여전히 전업주부 어머니를 전제로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생활양식이나 돌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아동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 여성들은 자녀가 영유아 시기일 때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 오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육아휴직을 하거나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송혜림 등, 2010; 임혜정, 2017).

이에 따라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부모가 자녀의 돌봄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하며, 아이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지환, 2018. 4. 4).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양육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이다. 1980년대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의 맞벌이와 부재, 빈곤 등으로 방임되거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소규모로 운영되어 오던 비영리 공부방이 2004년에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역사회 내 저소득 가정, 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보호아동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제2의 가정으로서 물리적·심리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이보람 등, 2018) 아동을 포함한 가정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이렇듯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전달체계보다도 학령기 아동 돌봄과 관련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성격이 온종일 돌봄 정책에서 제시한 돌봄 서비스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양육환경,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된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과 가족의 돌봄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온종일 돌봄 정책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과 지역아동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가 실시되었고, 상당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 및 양육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돌봄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패널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제외되었다.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전체 이용아동의 77%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39.1%(40,390명)로 가장 많다(보건복지부, 2018b). 앞서 언급했듯이 학령초기 아동은 발달 특성상 성인의 돌봄이 필요한 연령임에도 정규교육과정이 이른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돌봄 공백을 경험할 위험이 높고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가장 높은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의 적응과 발달은 이후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학령초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사로서 아동의 주관적 경험에 국한되며, 실제 발달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아동의 발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발달검사를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연구(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7; 김지은, 정혜린, 박혜준, 이순형, 2017; 정수지, 이순형, 2016)는 주로 센터 만족도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뿐 아동의 발달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다양한 환경체계(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를 고려한 연구들(김현정, 최은영, 2014; 방수민, 김경근, 2017; 송유미, 이선자, 2016)이 존재하지만, 각 환경요인의 어떠한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학령 초기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발달 및 문제행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발달은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발달영역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 특성을 표준화된 발달검사 도구를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람 중심적 분석방법(person-centered analysis)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 집단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발달 유형을 파악하고, 그 발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람 중심적 분석방법은 변수 중심적 분석방법과 달리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모집단 내의 이질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발달 유형을 추정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 역시 각각의 유형별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Bergman & Magnusson, 1997).

특별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약 80%이상이 맞벌이,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같이 돌봄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높은 우선보호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취약계층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가족 내 특성이 아동 발달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Hopson & Lee, 2011), 어머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과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아동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먼저,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우울하거나 과잉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고,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받지 못해서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김광혁, 최성만, 2013; 정익중, 권은선, 박현선, 2011; Odgers et al., 2012). 이혼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부모·조손가정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윤홍식, 2003;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돌봄의 부재로 인해 아동들이 낮은 자아 존중감, 우울이나 불안 등의 문제, 학교생활적응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송다영, 성정현, 한정원, 2003; 이정이, 최명선, 2007; 홍순혜, 2004). 또한 2000년대 이후에 결혼이민 여성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상당수의 연구들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의 어려움, 학습부진 문제, 낮은 자아 존중감 및 심리적 위축 등을 보고한다(강지현, 여태철, 김재철, 김지현, 임진영, 2013; 안혜령, 이순형, 2009; 정혜영, 정옥분, 2011; 조혜원, 2015; 황선영, 2013).

한편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주요하게 논의된다.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인지발달의 기회를 놓치고(Goldsmith & Rogoff, 1997),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유능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우며(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정서조절 문제를 갖게 될 경향이 높아진다(Waters & Sroufe, 1983).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인 취약성으로 주로 우울이 언급되는데, 우울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서 자녀의 요구에 덜 반응적이고, 적대적이거나 회피적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ampbell, Chon, & Meyers, 1995). 반면에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으로 살펴 보는데,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역할이나 자녀를 대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Bronfenbrenner, 1979),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며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지적된다(박희진, 문혁준, 2013; Belsky, 1984).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신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충시켜줄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다문화 가정여부, 양부모와의 동거여부, 맞벌이 가정여부, 다자녀 가정 여부, 주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주양육자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여 가정환경 요인과 주양육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의 아동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저하, 문제행동의 증가,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요인에 대해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Baydar & Brooks-Gunn, 1991; Reivich & Shatté, 2002),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주양육자의 심리사

회적 건강과 같은 가족 요인(Constantine & Benard, 2001; Petterson & Albers, 2001), 또래나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Criss, Pettit, Bates, Dodge, & Lapp, 2002),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요인(최윤정, 이시연, 권현진, 2004; Lamb, 1998)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취약계층 아동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강점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복탄력성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이 아동이 속한 환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발휘되고(Masten, 2001), 환경 속에 가용할 만한 자원이 많이 존재하거나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촉진되고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Benard, 1991; Lerner & Benson, 2003).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보내는 일상의 경험이 회복탄력성의 자원이 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나 과제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근면성을 획득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Erikson, 1950).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집단의 행동기준과 태도, 가치관을 배우며 또래집단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갖는다(Rubin et al., 2015). 따라서 학교 내에서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성취경험을 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을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제 2의 가정으로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며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용희, 2009; 이보람 등, 2018). 지역아동센터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은 학교적응과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동기 및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선미, 2006; 김현주, 2010).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을 경험한 아동들이 개인 내적인 특성이나 가정환경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된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후, 각 영역에 대한 발달 점수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발달 유형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 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 개인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집단의 수와 각 집단별 발달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

초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실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00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과 주양육자 133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본크기는 Cohen(1992)의 G.Power값을 고려하여 검증력 .08, 유의도 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133명의 아동은 남아 73명(54.9%), 여아

60명(45.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44명(33.1%), 2학년 43명(32.3%), 3학년 46명(34.6%)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33명의 주양육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109명(81.8%), 아버지 12명(9.1%), 조모 11명(8.3%), 조부 1명(0.8%) 순이었으며, 주양육자의 학력은 중졸이하 27명(20.3%), 고졸 60명(45.1%), 초대졸 이상 36명(27.1%)이었다. 가족의 형태는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81가구(60.9%), 부모, 조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3가구(9.8%)였다. 즉,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은 총 94가구로 70.7%였다.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6가구(19.5%), 한부모, 조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9가구(6.8%), 그리고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4가구(3.0%)였다. 이중 다문화가정은 58가구(43.6%)였고, 73가구(59.3%)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총 자녀수는 평균 2.21명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133)

특성	구분	수 (%)	특성	구분	수 (%)
아동 성별	남아	73 (54.9)	아동 학년	1학년	44 (33.1)
	여아	60 (45.1)		2학년	43 (32.3)
				3학년	46 (34.6)
주양육자	어머니	109 (81.8)	주양육자 학력	중졸이하	27 (20.3)
	아버지	12 (9.1)		고졸	60 (45.1)
	조모	11 (8.3)		초대졸 이상	36 (27.1)
	조부	1 (0.8)		결측	10 (7.5)
가족형태	양부모가족	81 (60.9)	다문화가정		58 (43.6)
	양부모확대가족	13 (9.8)	맞벌이가정		73 (59.3)
	한부모가족	26 (19.5)	총 자녀수 M (SD)		2.21 (0.73)
	한부모확대가족	9 (6.8)	월평균 가구소득 M (SD)		279.05 (137.68)
	조손가족	4 (3.0)			

279.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과 주양육자를 쌍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내용은 아동발달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대상으로 실시한 발달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인지, 언어 수행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정서발달은 또래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을 관찰하는 성인이 더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에게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달환경에 대한 정보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학령초기 아동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직접 읽고 기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원이 일대일로 문항을 읽어주고 리커트 척도를 시각화하여 만든 응답판을 사용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주양육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자기보고가 어려운 외국인 부모의 경우는 아동설문조사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조사원이 구두로 문항을 읽어주고 리커트 척도 응답판을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이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되었으며(IRB No. KDIS IRB 2016-03), 연구자들은 연구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발적 참여,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자료의 저장 및 보관 등과 관련된 연구 윤리

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동의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심리검사나 설문지 응답 도중에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진들은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중단하였다. 또한 개별 아동의 검사결과는 로렌탈 효과(선생님의 기대심리와 학생의 부응심리)를 감안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주양육자가 아동의 발달 검사 결과를 요구할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하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아동발달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환경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아동발달

아동 발달 영역은 언어, 인지, 심리, 신체, 사회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봐왔다. 인지 발달은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언어 발달은 한국어 수용·표현 어휘력검사, 사회정서 발달은 한국어판 사회적 기술 척도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언어 및 인지발달 검사는 아동학 전공자 11명이 수행하였으며, 사회정서 발달은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을 오랜 기간 관찰했던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내용과 방법 및 도구

구분	내용		대상 및 방법	도구
아동 발달	인지발달		아동 수행검사	K-WISC-IV
	언어발달		아동 수행검사	REVT
	사회정서발달		생활복지사 평정	SSRS, TRF
발달 환경	아동 개인 특성	성별, 학년	주양육자 설문조사	연구진 작성
	가정환경 요인	가족유형, 총 자녀수, 부모학력, 가구소득	주양육자 설문조사	연구진 작성
		주양육자 우울	주양육자 설문조사	Kessler 등(2002)
		주양육자 사회적지지	주양육자 설문조사	이봉주 등(2009)
	학교환경 요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아동 설문(면접)조사	민병수(1991)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문항
	지역사회 환경요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주당이용시간	주양육자 설문조사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 문항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학령초기 아동의 인지능력 평가를 위해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4판(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rth Edition, K-WISC-IV)(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을 사용하였다. K-WISC-IV는 만 6세부터 16세 1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하위 4개 지표(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와 주요 소검사 10개, 보충 소검사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언어이해 측정에는 공통성, 어휘, 이해, 지각추론에는 토막짜기,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 작업기억에는 숫자, 순차연결, 처리속도에는 기호쓰기, 동형찾기가 사용된다. 주요 소검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 소검사를 실시하는데 전체에서 최대 2개의 보충 소검사만 사용가능하다. 보충 소검사로 언어이해는 상식,

단어추리, 지각추론은 빠진곳찾기, 작업기억은 산수, 처리속도의 선택이 가능하다. 4개의 지표별 점수는 아동이 획득한 원점수의 합을 아동의 생활연령에 맞게 표준화시킨 환산점수가 사용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40-160점이다.

한국어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과 이주연(2009)이 개발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사용하였다. REVT는 2세 6개월부터 만16세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을 측정하며, 각각 18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표현어휘부터 진행되는 데 이 때, 연령단계가 2-4세, 5-6세, 7-9세, 10-12세, 13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생활연

령 기준의 시작문항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수용어휘를 검사할 때는 표현어휘에서 확립된 기초선 문항부터 검사를 진행한다. 수용 및 표현어휘 모두 원점수가 사용되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85점이다.

한국어판 사회적 기술 척도.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기술평정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교사용을 차영남(2015)이 번안한 SSRS-S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SSRS의 3개 하위 영역으로는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 학업능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SSRS-S의 하위 요인은 협동성, 자기주장, 자아통제로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기술된 내용을 아동이 얼마나 자주 보이는가를 평가하였으며, 하위 영역 별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하위 영역별 사회적 기술을 잘 발달시켰음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30점이다. 문항 예시로는 ‘친구와 의견 충돌 시 잘 참는다.’, ‘숙제를 잘 한다.’,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평정한 SSRS의 사회적 기술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3이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Edelbrock과 Achenbach(1984)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Teacher Report Form for Ages, TRF)을 국내에서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TRF는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은 하위 3개 요인(증후군, DSM 진단, 문제행동특수)이

있다. 문제행동은 총 120문항의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이 해당 문제행동을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자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하위 척도 중 문제행동 증후군 원점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의 총 9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환경

주양육자의 우울. 주양육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등(2002)의 우울 척도(K6)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뜻한다. 점수의 범위는 6-30점으로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체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1이다.

주양육자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한국아동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주양육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봉주 등(2009)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양육자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문항은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의논,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을 받는다’, ‘가사, 집 빠주기, 간병 등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 ‘육아,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이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가 사용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은 .56이다.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교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문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습 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이며 각 5 문항씩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잘 참여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규칙은 학교에서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학교에서 또래나 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점수는 역산처리 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는 전체 .85, 학습활동.78, 학교규칙 .73, 교우관계 .63, 교사관계 .81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서 수행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만든 질문에 대해 주양육자가 응답하였다. 총 4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문항으로는 '활동이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9이다.

주당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주양육자용 설문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평일(학교 가는 날)과 주말 및 공휴일(학교 가지 않는 날)로 구분하여 물어보았다. 응답자는 개방형 질문에 시간 및 분 단위로 답을 기입하였고, 분석에서는 응답을 바탕으로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 $\times$ 5 + 휴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 $\times$ 2]로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용시간 단위는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PASW 20.0과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ASW 20.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구성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발달수준과 양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집단 분류를 한 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 가운데 발달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MPLUS 7.0 프로그램은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위해 사용하였고, 데이터의 결측값은 결측값은 완전정보최대우도값(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추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문항에 대한 반응 패턴에서 이질적인 잠재집단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최종 모형 선택을 위한 준거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Entropy와 ALMR(adjusted-Lo-Mendell-Rubin)의 p -value값을 고려하였다.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며(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Entropy의 값은 0-1사이로 1에 가까울수록 계층분류에 오류가 적음을 뜻하고(Muthén & Muthén, 2000) 0.8이상이면 좋은 값이라고 평가한다(Clark, 2010). ALMR은 $k-1$ 개의 집단과 k 개 집단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 절차로, p -value가 .05보다 작을 경우 k 개 집단이 $k-1$ 개 집단보다 더 낫다고 해석할 수 있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적절한지, 계층의 특성이 그래프 상에서 잘 구분되는지, 각 계층의 분류율이 1% 이상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모형을 결정해야 한다(Jung & Wickrama, 2008; Muthén & Muthén, 2000)

III. 결과 및 해석

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수준

인지발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인지발달은 한국웍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IV)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아동의 전체 IQ 점수 평균은 94.23으로 평균 범위에 해당하였다. 네 가지 하위지표별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이해 94.52점, 지각추론 102.00점, 작업기억 94.89점, 처리속도 90.71점으로 모두 K-WISC에서 제시하는 평균 범위(90점~10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ISC-IV의 판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매우 낮음’, ‘경계선’, ‘평균 하’, ‘평균’, ‘평균 상’, ‘우수’, ‘매우 우수’ 등 7개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 IQ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하’, ‘평균’, ‘평균 상’에 전체 아동의 79.7%(106명)가 해당하였다. ‘경계선’ 및 ‘매우 낮음’에 해당되는 아동이 각각 11.3%(15명), 6.0%(8명)인 반면, ‘우수’에 해당하는 아동은 3.0%(4명)이고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아동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분포의 비율에 따르면 ‘평균 하’, ‘평균’, ‘평균 상’에 82.2% 아동이 속하며 ‘우수’,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이 8.9%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조사대상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아동의 점수는 대체로 ‘평균 하’, ‘평균’, ‘평균 상’ 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 지각추론 지표에서 ‘우수’ 및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아동이 각각 10.5%(14명), 3.0%(4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지표 간 비교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는 아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상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우수

표 3. 아동의 인지발달: K-WISC-IV 질적분류

(단위: 명, %)

구분	질적 분류							N
	매우낮음	경계선	평균하	평균	평균상	우수	매우우수	
전체IQ	8(6.0)	15(11.3)	25(18.8)	64(48.1)	17(12.8)	4(3.0)	0(0.0)	133(100.0)
언어이해	4(3.0)	17(12.8)	23(17.3)	69(51.9)	15(11.3)	4(3.0)	1(0.8)	133(100.0)
지각추론	1(0.8)	10(7.5)	23(17.3)	57(42.9)	24(18.0)	14(10.5)	4(3.0)	133(100.0)
작업기억	6(4.5)	12(9.0)	32(24.1)	62(46.6)	16(12.0)	5(3.8)	0(0.0)	133(100.0)
처리속도	14(10.5)	18(13.5)	31(23.3)	59(44.4)	5(3.8)	4(3.0)	2(1.5)	133(100.0)

주. 판정기준(정상 분포 비율): [매우 낮음] 69점 이하(2.2%), [경계선] 70점 이상 79점 이하(6.7%), [평균 하] 80점 이상 89점 이하(16.1%), [평균] 90점 이상 109점 이하(50%), [평균 상] 110점 이상 119 이하(16.1%), [우수] 120점 이상 129점 이하(6.7%), [매우 우수] 130점 이상(2.2%)

한 수행을 보였다. 반면 처리속도의 경우 ‘경계선’ 및 ‘매우 낮음’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각각 13.5%(18명), 10.5%(14명)로 4개 지표 중 가장 높았으며, 정상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더 많은 아동이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추론 검사는 처리속도와 관련성이 낮으며 비언어적 추론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을 측정하는 검사이다(오상우, 오미영, 김선희, 2016).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은 Cattell-Horn이 제안한 지능의 구성요소로서(Carroll, 1993), 유동적 지능은 문화적 영향이나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에 결정적 지능은 문화적 경험과 교육에 의해 획득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연구결과 다른 3개 지표에서 인지 발달 수준이 낮은 아동의 비율이 대체로 높기는 하지만, 획득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추론이나 이해 능력에서는 조사 대상 아동의 수준이 뒤처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후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 환경의 질이 앞으로의 인지 발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발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언어발달은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REVT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어휘 발달 정상성을 판별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서 ‘정상 발달’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각각 66.6%(88명), 71.4%(95명)로 대부분이었다. 표준정규분포에서 68%가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수용어휘력은 비슷한 수준, 표현어휘력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약간 우수’ 및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살펴보면 수용어휘력 17.4%(23명), 표현어휘력 23.3%(31명)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아동이 우수한 수준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표준편차 미만에 해당하는 ‘발달지체’ 및 ‘약간 지체’에 해당하는

표 4. 아동의 언어발달: REVT 결과 판정

(단위: 명, %)

구분	결과판정					N
	발달지체	약간지체	정상발달	약간우수	매우우수	
수용어휘력	19(14.4)	25(18.9)	65(49.2)	18(13.6)	5(3.8)	132(100.0)
표현어휘력	18(13.5)	20(15.0)	64(48.1)	13(9.8)	18(13.5)	133(100.0)

주. 판정기준: [발달지체] 평균으로부터 -2표준편차 이하 [약간 지체] -1표준편차와 -2표준편차 사이 [정상 발달] -1표준편차와 1표준편차 사이 [약간 우수] 1표준편차와 2표준편차 사이 [매우 우수] 2표준편차 이상

아동 또한 수용어휘력 33.3%(44명), 표현어휘력 28.5%(38명)로 정상 분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언어 발달에서 지체를 보이는 아동 또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REVT 결과를 통해 조사 대상 아동의 언어 발달에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상 분포에 비해 우수한 집단과 발달지체를 보이는 집단의 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정서발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각 척도에 대한 발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생활복지사가

평정한 교사용 사회기술평정척도(SSRS)의 하위 척도인 사회적 기술 척도 점수로 살펴보았다. 이 척도는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하위요인의 점수는 3점 만점에 협동성 2.09점, 주장성 2.06점, 자기조절 2.04점, 사회적 유능감 전체 2.07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국내 표준화된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구성하는 소척도별 검사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문제행동 점수를 규준집단과 비교했을 때, 정상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이 85.0~94.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준임상 및 임상집단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기타 문제(6.0%), 규칙위반(6.8%) 척도에서 가장 낮

표 5.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사회적 기술(SSRS) 점수

(단위: 명, %)

구분	최소값	최대값	M(SD)	N(%)
협동성	1.00	3.00	2.09(.46)	133(100.0)
주장성	1.00	2.90	2.06(.37)	133(100.0)
자기조절	1.10	2.90	2.04(.41)	133(100.0)
전체	1.07	2.73	2.07(.36)	133(100.0)

표 6.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문제행동(TRF) 점수

(단위: 명, %)

구분	결과분류			N(%)	원점수 M(SD)	규준집단 M(SD)
	정상	준임상	임상			
내재화 척도						
불안/우울	119(89.5)	6(4.5)	8(6.0)	133(100.0)	3.39(3.88)	2.57(3.27)
위축/우울	121(91.0)	9(6.7)	3(2.3)	133(100.0)	1.89(2.41)	1.56(2.44)
신체증상	123(92.5)	8(6.0)	2(1.5)	133(100.0)	.59(1.27)	.61(1.38)
외현화 척도						
규칙위반	124(93.2)	6(4.5)	3(2.3)	133(100.0)	1.68(1.99)	1.33(2.26)
공격행동	118(88.7)	11(8.3)	4(3.0)	133(100.0)	6.18(6.65)	3.80(5.85)
기타 척도						
사회적미성숙	113(85.0)	12(9.0)	8(6.0)	133(100.0)	3.22(3.19)	1.77(2.60)
사고문제	116(87.2)	13(9.8)	4(3.0)	133(100.0)	.98(1.61)	.62(1.40)
주의집중문제	113(85.0)	13(9.8)	7(5.3)	133(100.0)	10.57(9.54)	6.43(8.27)
기타문제	125(94.0)	8(6.0)	0(0.0)	133(100.0)	1.03(1.21)	0.95(1.42)

주 1. 분류기준: [임상범위] T점수 70(백분위 98)이상, [준임상범위] T점수 65(백분위 93)이상, T점수 70미만

주 2. 규준집단 평균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오경자, 김영아, 2010)에서 발췌

왔고, 주의집중 문제(15.1%)와 사회적 미성숙(15%) 척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척도별로 원점수 평균을 한국판 TRF 초등학교생 규준 집단의 평균(오경자, 김영아, 2010)과 비교한 결과, 신체증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행동(2.35점)과 주의집중문제(4.14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점수가 규준 집단의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집단별 발달특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인지발달은 언어이해를 포함한 4개의 하위 지표 점수를, 언어발달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의 2개 지표 점수를,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사회적 기술의 3가지 하위 지표, 문제행동의 9가지 지표 점수를 모두 투입하였으며, 각 발달영역에 대한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점수로 환산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표 7에 제시한 것과 같이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잠재계층수가 증가할수록 AIC와 ABIC값이 줄어들었고, Entropy 값은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감소하

표 7. 계층 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N = 133)

잠재 계층수	AIC	ABIC	Entropy	ALMR LR test p-value	잠재계층분류빈도(%)			
					1	2	3	4
1개	6844.972	6835.152						
2개	6041.091	6021.178	0.968	.0001	58 (.44)	75 (.56)		
3개	5874.906	5844.901	0.961	.6986	39 (.29)	48 (.36)	46 (.35)	
4개	5804.215	5764.116	0.970	.7489	50 (.38)	25 (.19)	32 (.24)	26 (.20)

표 8. 집단별 발달차이

(N = 133)

			집단 1 (n = 58) (사회정서발달 부진집단)	집단 2 (n = 75)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	t
인지발달		언어이해	-.01(1.00)	.00(1.01)	-.06
		지각추론	.04(1.06)	-.03(0.96)	.39
		작업기억	.02(1.03)	-.02(0.98)	.24
		처리속도	-.06(1.04)	.04(0.97)	-.56
언어발달		수용언어	.00(0.96)	.00(1.04)	.01
		표현언어	-.05(0.94)	.04(1.05)	-.52
사회 정서 발달	사회적 기술	협동성	-.41(1.01)	.32(0.88)	-4.48***
		자기주장	-.23(1.10)	.18(0.88)	-2.41*
		자아통제	-.41(1.05)	.32(0.84)	-4.50***
	문제 행동	불안우울	.69(1.12)	-.53(0.39)	7.96***
		위축우울	.66(1.14)	-.51(0.43)	7.39***
		신체증상	.52(1.33)	-.40(0.21)	5.25***
		규칙위반	.46(1.23)	-.36(0.56)	4.69***
		공격행동	.62(1.15)	-.48(0.48)	6.86***
		사회적미성숙	.63(1.10)	-.49(0.55)	7.16***
		사고문제	.58(1.27)	-.45(0.27)	6.10***
		주의집중문제	.63(1.07)	-.49(0.59)	7.15***
		기타문제	.60(1.15)	-.46(0.51)	6.57***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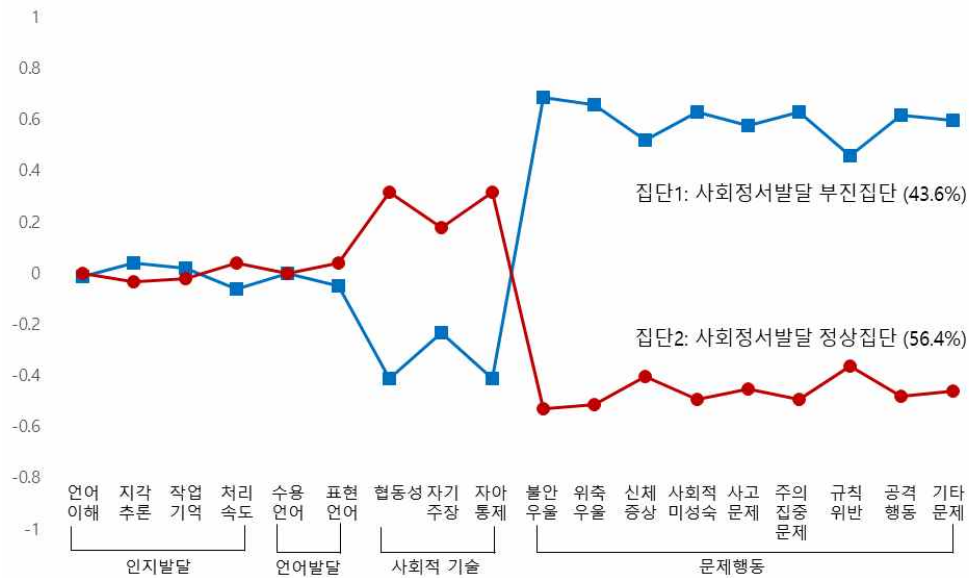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한 두 집단 아동의 발달양상

였지만, 다시 4개에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ALMR의 p -value값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수가 4개인 경우보다는 3개인 경우가, 3개인 경우보다 2개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적합한 모델로 나와 2개 집단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2개 집단의 분류빈도는 각각 58명(43.6%), 75명(56.4%)이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두 개의 잠재계층에서 발달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별 t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언어와 인지 영역에서는 집단 간 발달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집단이 첫 번째 집단에 비해 협동성($t = -4.48, p < .001$), 자기주장($t = -2.41, p < .05$), 자아통제($t = -4.50, p < .001$)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회적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영역에서

는 불안우울($t = 7.96, p < .001$), 위축우울($t = 7.39, p < .001$), 신체증상($t = 5.25, p < .001$), 사회적미성숙($t = 7.16, p < .001$), 사고문제($t = 6.10, p < .001$), 주의집중문제($t = 7.15, p < .001$), 규칙위반($t = 4.69, p < .001$), 공격행동($t = 6.86, p < .001$), 기타문제($t = 6.57, p < .001$)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은 언어와 인지발달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회정서발달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집단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첫 번째 집단은 ‘사회정서발달 부진’, 두 번째 집단은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별 아동 발달 특성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검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정서발달 부진' 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Hosmer와 Lemeshow의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chi^2 = 6.342$, $df = 8$, $sig. = .609$)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모형의 집단분류 정확성은 73.5%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사회정서발달 정상' 집단에 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정환경 요인

표 9.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검증 ($N = 133$)

		<i>B(S.E)</i>	Wald	<i>Exp(B)</i>
아동 개인 특성	성별(여아)(%)	-.228(.60)	.145	.796
	학년(%)		3.263	
	2학년	.729(.66)	1.209	2.073
	3학년	-.456(.67)	.465	.634
가정환경 요인	다문화 가정(%)	.513(.63)	.673	1.670
	양부모와 동거여부(%)	.153(.63)	.029	1.164
	맞벌이 가정(%)	-.780(.65)	1.430	.458
	총 자녀수	.304(.35)	.752	1.356
	주양육자 학력(%)		3.018	
	고졸	-1.179(.71)	2.732	.308
	초대졸 이상	-.577(.77)	.556	.561
	가구소득	-.067(.67)	.010	.935
	주양육자 우울	-.128(.06)	4.615*	.880
	주양육자 사회적 지지	1.029(.52)	3.930*	2.798
학교환경 요인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272(.61)	.202	1.312
	학교규칙	-.315(.46)	.470	.730
	교우관계	1.136(.53)	4.542*	3.114
	교사관계	-.568(.42)	1.878	.567
지역사회 환경요인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	-.459(.46)	.983	.632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090(.04)	5.212*	1.094

주. 사회정서발달 부진집단임

* $p < .05$.

에서는 주양육자의 우울(Wald = 4.615, $p < .05$)과 사회적지지(Wald = 3.930, $p < .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교환경 요인에서는 교우관계(Wald = 4.542, $p < .05$),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요인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Wald = 5.212, $p < .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가 우울할수록 아동이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0.88배 감소하고, 주양육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2.798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교우관계가 좋을 때 사회정서 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3.114배 증가하며, 아동의 주당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회정서 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1.094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양육자가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자녀 역시 문제행동을 덜 보이고 사회적 기술을 잘 형성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Conger et al., 1994; Kiernan & Mensah, 2009; Petterson & Albers, 2001; Waters & Sroufe, 198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정서발달이 긍정적이라는 결과(Criss et al., 2002),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안전망이 된다는 결과(최윤정 등, 2004; Lamb, 1998)와 일치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주

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발달 프로파일에 따라 유형을 분석한 후에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과 주양육자 133명의 쌍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 집단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발달 유형을 파악하고, 이항로지스틱분석을 통해 발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수준은 개인차가 크다. 조사대상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 수준은 연령규준 대비 정상발달 수준에 속하는 아동이 많았지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에서는 약 60%이상의 아동이 ‘평균’ 이상, ‘정상 발달’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인지발달에서는 약 17%의 아동이 ‘경계선’ 및 ‘매우 낮음’에 속하였으며, 언어발달에서는 약 30%의 아동이 ‘약간지체’ 및 ‘발달지체’에 속하였다. 사회정서발달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술은 보통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문제행동에서도 정상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이 높았지만 ‘준임상’ 및 ‘임상’ 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하위 척도별로 적게는 6%에서 높게는 15.1%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행동의 경우 신체증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규준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인지발달에서 획득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추론이나 이해능력에서 조사대상 아동의 점수가 낮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발달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언어발달 수준 역시 정상한 집단에 분류된 아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술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 아동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아동들이 발달잠재력을 발현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두 유형의 발달 차이는 인지영역과 언어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사회정서 발달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발달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사회정서발달 부진' 집단으로 명명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술 점수가 높고 적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사회정서발달 정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이 규준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즉,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결과가 긍정적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사회정서발달의 수준에 따라 집단이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점수가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 중 공격행동과 주의집중 문제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행동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Herman & Ostrander, 2007)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이귀옥, 이미리, 2013). 또한 공격적인 행동이나 주의가 산만함으로 인해 부모나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추가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송연주, 이동훈, 2013; Treuting & Hinshaw, 2001).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이 발달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유능성을 키울 수 있을만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보람 등, 2018)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사회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놀이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이나 놀이중심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서비스,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회정서지원을 위한 상담기술이나 기법과 관련된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가 덜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이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주당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회정서발달' 정상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여부, 양부모와의 동거여부, 맞벌이 가정여부, 다자녀 가정 여부가 발달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가족이 특성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특별히 발달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저소득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의 가족 유형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김광혁, 최성만, 2013; 송다영 등, 2003; 이정미, 최명선, 2007; 정익중 등, 2011; 조혜원, 2015; 황선영, 2013; Odgers et al., 2012)과는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이 사회정서발달에서만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로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주 양육자의 우울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건강, 또래관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관련된 변수가 발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보호요인이 많을수

록, 그리고 아동이 속한 환경에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자신의 강점과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면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erner & Benson, 2003; Masten, 2001).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 결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경험은 아동의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고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김선미, 2006; 김용희, 2009; 김현주, 2010; 이보람 등, 2018)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길수록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는 의미는 돌봄 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아동들이 발달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안정망을 형성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은 정상분포에 비해 부진한 아동의 비율이 높고 발달의 개인차가 큰 편인데, 인지·언어 발달 보다는 사회정서발달에 차이가 컸으며 주양육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교우관계, 센터이용시간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초기 아동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지 않고, 발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82.3%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당 6.7시간을 사교육으로 보내고 있다(교육부, 2018). 방과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10.1%로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교육부, 2018). 이는 방과 후 돌봄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더해져 아동들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며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미, 교양, 재능개발을 위한 예체능 사교육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교육부, 2018), 놀이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보람 등, 2018)에서도 학령초기 아동들의 사회정서지원을 위하여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실무자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문제행동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듯이 학령초기 아동을 위한 돌봄은 사회정서발달과 심리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 양육자의 우울이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아동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아동의 행동과 적응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Granic, Dishion, & Hollenstein, 2003). 따라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것 이외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아동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에 아동과 가족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이보람 등, 2018).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개선방향과 발전과제 역시 남아있지만(이보람 등, 2018),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온종일 돌봄 체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현실에서,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발달실태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검증함으로써 돌봄 정책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동이 발달 잠재력을 발휘하며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성상 취약계층의 아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학령초기 아동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G.Power값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정하였으나 133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한다면 3개 이상의 다양한 발달프로파일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달환경 특성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정책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현, 여태철, 김재철, 김지현, 임진영 (2013).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 비교. *교육문화연구*, 19(2), 31-62.
- 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 한국판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K-WISC IV). 서울: 학지사.
- 교육부. (2018).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김광혁, 최성만 (2013). 빈곤/비빈곤 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논총*, 28(2), 145-161.
-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학습습관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7), 119-146.
- 김선미 (200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용희 (2009).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정혜린, 박혜준, 이순형 (2017). 지역아동센터 지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8(5), 19-32.
- 김지환 (2018. 4. 4.). 초등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임기 중 대상 학생 20만명 늘릴 것.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42147015&code=910100에서 2018년 7월 1일 인출
- 김현정, 최은영 (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보건사회연구*, 34(1), 239-267.
- 김현주 (2010).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2), 211-233.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 문혁준 (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81-98.
- 방수민, 김경근 (201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7(2), 69-99.
- 보건복지부. (2018a). 2018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b).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송다영, 성정현, 한정원 (2003). 한부모가족 아

- 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273-299.
- 송연주, 이동훈 (2013). ADHD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이해. *열린교육연구*, 21(2), 307-330.
- 송유미, 이선자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정환경 건강성과 심리적·사회적 성숙의 관계를 통한 실천적 함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9, 65-97.
- 송혜림, 조영희, 정영금, 고선강, 김유경 (20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요구 및 정책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안혜령, 이순형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30(1), 1-10.
-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
- 오상우, 오미영, 김선희 (2016). 한국 웨슬러 아동기능검사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심리학회.
- 윤홍식 (2003).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3, 51-74.
-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보람, 김현정, 김태종, 김부열, 박혜준 (201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인식하는 이용 아동의 발달특성과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62), 165-205.
- 이봉주, 곽금주, 구인희, 김민화, 김선숙, 김지현, 김혜란, 박혜준, 신혜은, 윤명희, 이강이, 이광호, 이순형, 정익중, 진미정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정이, 최명선 (2007). 조손가정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동 행동문제. *놀이치료연구*, 10(1), 63-72.
- 임혜정 (2017).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과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7(4), 137-169.
- 정수지, 이순형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4), 163-190.
- 정익중, 권은선, 박현선 (2011).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체적의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한국아동복지학*, (34), 63-93.
- 정혜영, 정옥분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77-297.
- 조영희, 송혜림 (2009). 일-가정 균형을 위한 보육 및 학교 영역에서의 요구도와 정책: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65-83.
- 조혜원 (2015). 국내 게재된 다문화가정 아동 관련 연구 현황: 2011년-2015년 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5(2), 37-56.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0), 97-131.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전국 지역아동*

- 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차영남 (2015). 도덕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초등학생과 통합학급 또래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교우관계 및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시연, 권현진 (2004).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레질리언스. *한국청소년연구*, (39-40), 385-414.
- 최효진 (2016).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36, 51-67.
- 통계청. (2017). 아동종합실태조사. 대전: 통계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Ⅷ: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황선영 (2013). 다문화가족아동의 정서와 사회 적응실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1), 173-195.
- 황혜원 (2014). 이웃환경특성이 저소득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정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4), 121-142.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Baydar, N., & Brooks-Gunn, J. (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care arrangements on preschoolers'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Evidence from the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27(6), 932-94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nard, B. (1991).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Oregon: Western Center for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 Benasich, A. A., & Brooks-Gunn, J. (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3), 1186-1205.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Campbell, S. B., Cohn, J. F., & Meyers, T. (1995). Depression in first-time mothers: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depression chronic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1(3), 349-357.
- Carroll, J. B. (1993). *Human cognitive abilities: A survey of factor-analytic stud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nger, R. D., Ge, X., Elder J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Constantine, N. A., & Benard, B. (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2), 122-140.
- Criss, M. M.,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Lapp, A. L. (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3(4), 1220-1237.
- Edelbrock, C. S., & Achenbach, T. M. (1984). The teacher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Profile: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2), 207-217.
- Erikson, E. H. (1950). Growth and crises of the "healthy personality." In M. J. E. Senn (Ed.), *Symposium on the healthy personality* (pp. 91-146). Oxford: Josiah Macy, Jr. Foundation.
- Goldsmith, D. F., & Rogoff, B. (1997). Mothers' and toddlers' coordinated joint focus of attention: Variations with maternal dysphoric symptoms.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13-119.
- Granic, I., Dishion, T. J., & Hollenstein, T. (2003). The family ecology of adolescence: A dynamic systems perspective on normative development. In G. R. Adams & M. D. Berzonsky (Eds.),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 60-91).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ing.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Service.
- Herman, K. C., & Ostrander, R. (2007). The effects of attention problems on depression: Developmental, academic, and cognitive pathway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2(4), 483-510.
- Hopson, L. M., & Lee, E. (2011). Mitigating the effect of family poverty on academic and behavioral outcomes: The role of school climate in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11), 2221-2229.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T.,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ernan, K. E., & Mensah, F. K. (2009). Poverty, maternal depression, family status and children's cognitive and behavioural

-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ocial Policy*, 38(4), 569-588.
- Lamb, M. E. (1998). Nonparental child care. In M. E. Lamb (Ed.),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nontraditional families* (pp. 47-64). New York: Psychology Press.
- Lerner, R. M., & Benson, P. L. (2003).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Odgers, C. L., Caspi, A., Russell, M. A., Sampson, R. J., Arseneault, L., & Moffitt, T. E. (2012). Supportive parenting mediates neighborhoo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from ages 5 to 12.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3), 705-721.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 Petterson, S. M., & Albers, A. B. (2001). Effects of poverty and maternal depression on early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2(6), 1794-1813.
- Reivich, K., & Shatté, A. (2002). *The resilience factor: 7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Books.
- Rubin, K. H., Coplan, R. J., Chen, X., Bowker, J. C., McDonald, K. L., & Heverly-Fitt, S. (2015).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 M. E. Lamb (Eds.), *Developmental science: An advanced textbook* (7th ed., pp. 591-649). New York: Psychology Press.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Treuting, J. J., & Hinshaw, S. P. (2001).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boy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ssociations with comorbid aggression and explanatory attributional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1), 23-39.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1 차원고접수 : 2018.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8. 08. 27.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8.

Developmental Profiles of School-aged Children using Korean Child Community Centers and Developmental Environments as Predictors

Lee, Boram¹⁾ Park, Hye Jun¹⁾ Kim, Soo jung¹⁾ Kim, Booyuel²⁾ Kim, Tae Jong²⁾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files of the cognitive, languag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2)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For these purposes, developmental tests an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113 pairs of children and caregivers.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used for identifying distinct group and binomial logistic analysis was employed for finding the environmental predictors influencing developmental profi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child's development showed a large individual difference and subgroup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underachievement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normal achievement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as found to be only in a socio-emotional development. Finally, the results showed that as the depression level of the caregiver was lower, the following effects were found: higher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children's greater ability to develop school friendship longer patronage of the other, and higher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normal achievement of socio-emotional development'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including family, school, and community-to go beyond addressing the absence of care and also strengthen children's developmental potential.

Keywords: Korean Child Community Center, early 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rofiles, developmental environment, latent profile analysis